

2 0 1 7  
체인지메이커 COMMA  
진로 - 공감 소통  
활동 보고서

성수동 소셜벤처 투어  
스토리 텔링 데이  
변화력 충전 타임  
시즌2 청소년대표 발표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한겨레 신문 기사  
네이버 메인 노출  
아쇼카 사례 영상 선정

# 진로-공감소통 활동 보고서

## (체인지메이커 COMMA)

팀원	역할
20608 이민영	팀장
20211 박연수	부팀장
20521 한해인	COMMA팀
20808 김지은	COMMA팀
20707 변지윤	COMMA팀
20406 박주연	미술팀
20427 홍정우	미술팀
20214 심민서	미술팀

2017.01.14. ~ 2017.07.04

## 1. 동아리 소개

본 프로젝트는 2016년 체인지메이커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서로 공감과 위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팀 구호 : 같이 가자 COMMA! 함께 가자 COMMA!

팀 명 : COMMA = COM + MY AFFORD, 함께 하는 나의 여유

팀 팔찌 글귀 : I'M YOUR COMMA, YOU'RE MY COMMA

우린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 2. 활동 개요(월별 일정)

1월	성수동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스토리텔링데이 (전국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유스벤처 활동 공유회)
2월	PRO.03-A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초성 벽화 기획 PRO.03-B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글귀 및 일러스트 기획
3월	PRO.03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학교 지원비 결재 및 프로젝트 설치 장소 선정
4월	PRO.03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미술팀 모집 및 아이디어 구체화
5월	
6월	PRO.02. 종로 변화력 충전타임 시즌2 체인지메이커 교육자들의 경험보고서 설명회 청소년 대표 발표  PRO.03-B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글귀 및 일러스트 제작
7월	PRO.03-B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글귀 및 일러스트 설치 PRO.03-B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한겨레 신문 취재

### 3. 활동 내용

#### PRO.01. 성수동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스토리텔링데이

(발표 참여 팀원 : 이민영, 박연수, 김지은, 한해인, 변지윤)

일시 : 2017.01.23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카우앤독

인원 : 25개 도시 청소년 150명(27팀) 교사 50명

내용 :

12:00-2:00 성수동 투어

성수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인 "소셜 벤처"들이 모여있는 동네다.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외에 "직업으로서의 체인지메이커" 환경을 보기 위해 성수동에 모여 투어를 진행했다.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가게,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 하우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그린 꽃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존귀함'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곳,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하는 단체 등 다양한 "소셜 벤처" 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더 넓은 범위의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접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고,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신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스토리텔링데이가 시작되었다.

2:00-5:30 7개의 발표팀씩 총 4군데로 나눠져서 서로의 경험 공유

25개의 도시에서 학생 150명, 교사 50명이 성수동에 모였다. 7개의 발표팀씩 총 4군데로 나눠졌으며 우리 COMMA팀은 D그룹에 배정돼 마리몬드라운지로 갔다. 표에 나온 순서대로 각자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재미있었던 순간,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 보람있었던 순간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 팀에서는 체인지메이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리의 목표, 힐링키트 프로젝트, 결과 및 소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7팀의 발표 후에는 특정 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친구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거나 시작한지 얼마 안된 친구들에게는 경험한 과정에서 얻은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체인지메이커 친구들과는 서로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잘한점, 부족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체인지메이커 활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정지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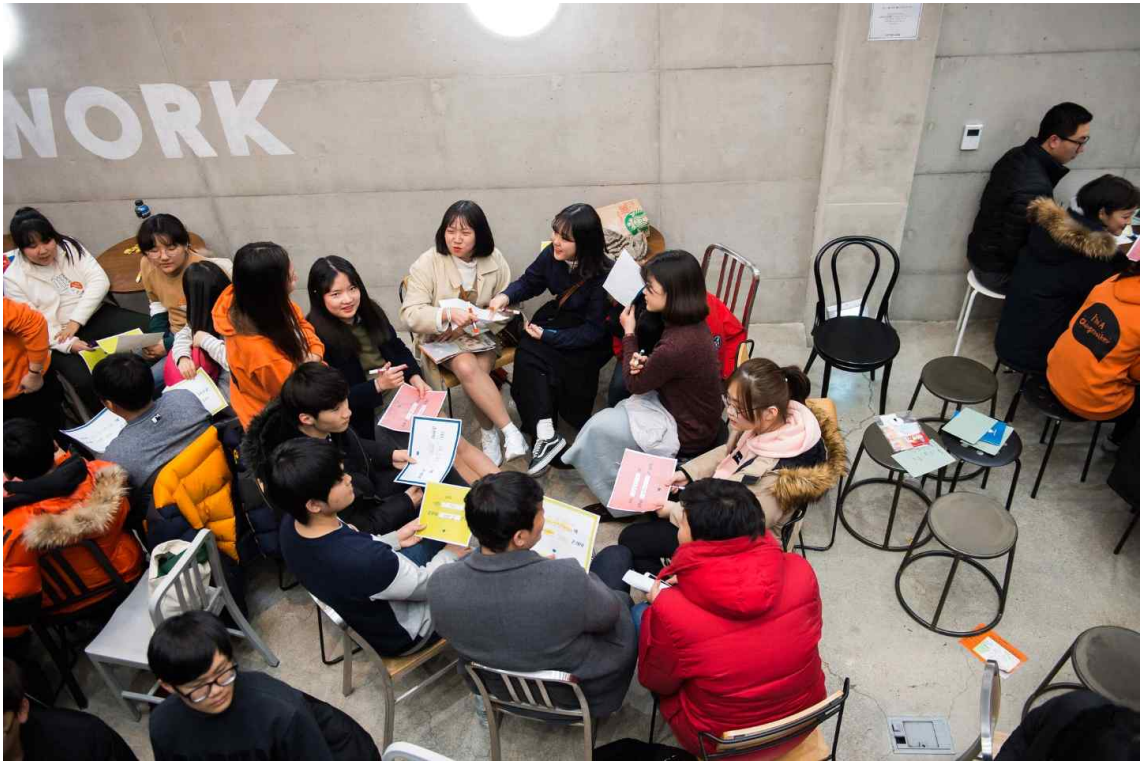
학교명	이름	지역	팀이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설명
대전서중학교	박한솔 이종기 권성현	보령	패드립 방지팀	패드립 방지 프로젝트	패드립을 줄이기 위한 스템프제도를 운영함
동해중학교	김우진 장민수 장태민 최윤희 한결	동해	Let's change	동해중 보편 웃입하기 대작전	학교가 우중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웃입하기 프로젝트 실시. 선생님들과 학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동해시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표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서나희 김서영 왕비	부산	Change Maker. Peniel	학교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자	지하철 노약자 임산부석 활성화 홍보물로 지하철에서 홍보활동 및 인터뷰 진행. 다문화사회의 차별 해결방안으로 비정상 회담을 모티브로 하여 홍보 영상을 만들었음. 낭비되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활동 진행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윤영연	전주	T.A.T	True africa tv	자료조사 및 실험
수지고등학교	김지은 변지윤 이민영 한해인	용인	COMMA	수지고 따뜻한 위로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학교 청소년들의 삭막하고 경쟁심에 지친 분위기 대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익명손편지 쓰기, 힐링구호품이 들어있는 힐링키트 제작. 스트레스 다이어트론을 설치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
와부고등학교	백민혁 황수민	남양주		PLASO	PLASO 프로젝트 발의, 청소년들의 제인지메이킹을 위한 디자인싱킹 동아리 Celebrity 프로젝트와 균형적 소통을 통한 학교문화혁신을 이끌어 내는 Deepika 프로젝트 구성 및 구체화 단계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조은수 윤다희	이천	마켓인스플	플리마켓 전파를 위한 툴킷제작	중고물품을 학교에서 파는 플리마켓 개최. 플리마켓을 개최하려는 다른 학교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툴킷제작

6:00-8:00 체인지메이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경험 공유

A~D그룹으로 나뉘었던 총 140명의 체인지메이커 친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각자의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체인지메이커 여정을 응원했다.







#COMMA  
수지고등학교



“  
**위로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사막하고 경쟁심에 지친 분위기 대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진행함  
”

#COMMA: 수지고등학교



**기억에 남는 순간 1: 체인지메이커 합격 후 여름 캠프**

여름방학 시작 후 캠프를 했는데, 평생 말 걸어도 일이 없을 만한 사람들과 각자  
주목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놀라웠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떤 홍보자료가 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기에 많은 걸 배운 시간!



#COMMA: 수지고등학교



**기억에 남는 순간 2: 힐링키트 제작 및 포장과정**

힐링키트를 만들자고 결정한 후, 구성품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위조성적표,  
마음산책 등 없던 물건을 생각해내고 직접 그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뿌듯  
했음. 보통 아이디어는 생각만 하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150세트로 만들어냈다는 게 더 충격적!

팀원들끼리 하기에는 많은 양이었는데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고  
마운 반친구들이 있었음. 지나가며 격려해주는 반친구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음



#COMMA: 수지고등학교



**기억에 남는 순간 3: 힐링키트 나눔의 과정**

힐링키트를 처음 판매한다고 했을 때 하루만에 50명,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한  
후에 하루만에 100명으로 신청이 바로 마감되었음. 쉬는 시간마다 반 앞에 책  
상과 노트북 두고 홍보영상 틀어 놓고 신청도 받음!

한 친구가 힐링키트가 엄청 기대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음.  
모두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다행이라는 안도감.  
이후 힐링키트를 받은 친구가 감동받아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음! 의도한바 다  
로 공유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사례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음



네이버 카드 뉴스  
청소년 유스벤처활동 수지고 COMMA팀 활동소개  
(메인 노출 이력0)  
출처 : 아쇼카한국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유스벤처 수지고 COMMA팀  
활동소개 영상(제작 by 아쇼카한국)  
상위 3팀만 영상제작에 선정됨  
출처 : 아쇼카한국 체인지메이커 유튜브 계정



## PRO.02.변화력충전타임시즌2 체인지메이커교육자들의 경험보고서설명회 (발표 참여 팀원 : 이민영, 박연수)

일시 : 2017.06.03

장소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마이크임팩트 1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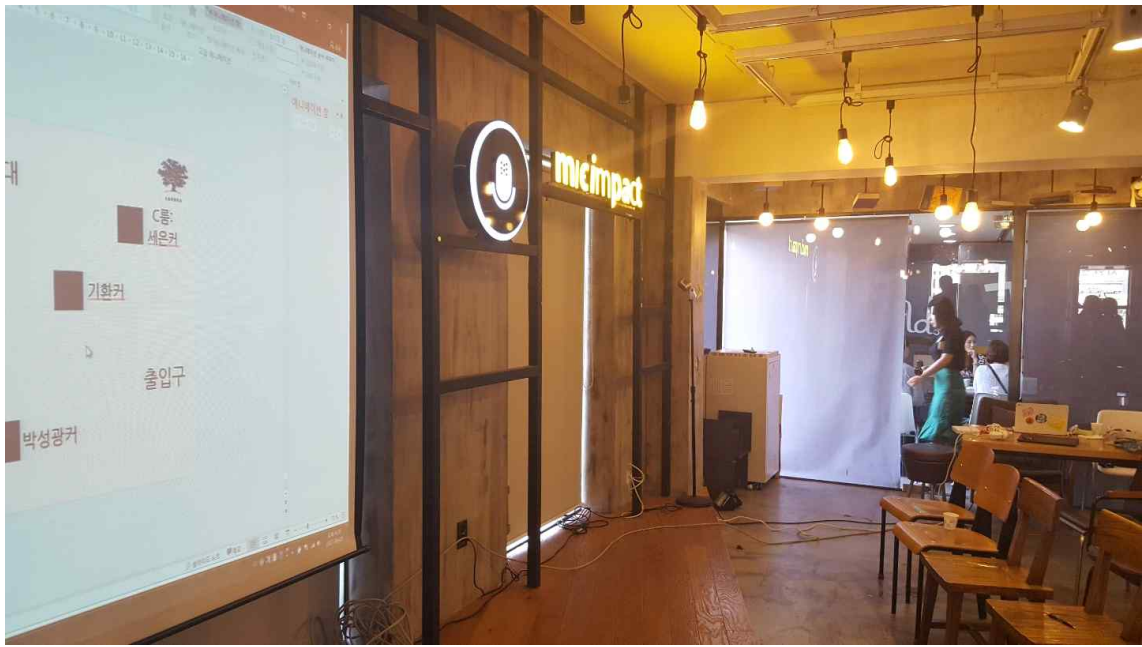
인원 : 100여명의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지도교사 및 일부 청소년

내용 :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의 모임, 변화력충전타임 시즌2에 초대되었다. 학교 안팎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이야기를 담은 “경험보고서 story book”의 출간을 기념하여 교사 10분의 체인지메이킹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에 유일한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대표로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 COMMA팀을 비롯한 수지고등학교 전체 체인지메이커 담당교사이셨던 박성은 선생님의 발표 후에 "체인지메이커로서의 나의 변화, 우리가 중심이 된다는 것"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유일한 청소년 대표였기에, 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도교사의 지원,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우리가 체인지메이커를 시작하게 된 계기, 프로젝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변화한 점 등을 최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약 20분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앞으로의 체인지메이커분들께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 드리하고자 했다.

<발표 당시 모습>





<발표 이후 발표팀별 세부내용 공유>





체인지메이커 교육자를 위한 사례발표  
(유일 청소년 대표)

영상코드 출처: 아쇼카한국 체인지메이커 유튜브 계정



# YOUTH,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공감 #공유 #스쳐간, 혹은 스며든 인연들

2017 재인지메이커 COMMA

2017 수지고 2학년 이민영 박연수

## 1 스쳐간, 혹은 스며든 인연들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감캠페인을 했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요?  
 낯선 사람들과의 2시간, 심지어 우리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 어땠나요?



# 1 스쳐간, 혹은 스며든 인연들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감캠페인을 했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요?  
낯선 사람들과의 2시간 심지어 우리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 어땠나요?



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네요!  
낯선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었나요?

# 2 우리가 주목한 문제점

영상으로 엮은 COMMA팀의 체인지메이킹!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COMMA는 어떤 팀인가요?

과도한 경쟁, 서로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하게 되는 **삭막한 분위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 2 우리가 주목한 문제집

영상으로 엮은 COMMA팀의 체인지메이킹!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COMMA는 어떤 팀인가요?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지 고민 많았겠어요ㅠ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해주세요~

## 3 문제해결의 단계

입시경쟁에 치이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에게 공감과 공유, 그리고 위로는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COMMA팀의 3단계 해결방법을 알아봅시다!

**SOLUTION**

**STEP 1. 학급단위 - 익명 손편지**

**STEP 2. 학년단위 - 힐링키트 나눔**

**STEP 3. 학교단위 - 위로의 계단**

# 4 힐링키트 제작 및 나눔

힐링키트가 뭐죠? 월~ 150세트를 자체 제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목적과 구성을 살펴봅시다



## 힐링키트란?

위로와 공유가 가능한 힐링 구호품이 들어있는 키트

- CONCEPT : HEALING & SHARE
- 1인 2개 제한 수지도 1-2학년 150명 한정
- 자신 혹은 상대방을 위로하는 손편지로 신청
- 개당 단가 2300원 무료 나눔

# 4 힐링키트 제작 및 나눔

힐링키트가 뭐죠? 월~ 150세트를 자체 제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목적과 구성을 살펴봅시다



## 1. SHARE

COMMUNITY 팔찌, 손편지

#공유 #공감 #공통체



## 2. HEALING

밴드, 컬러링도안, 비타민,  
먹거리, 위조성적표

#위로 #지유

# 4 힐링키트 제작 및 나눔

힐링키트가 뭐죠? 월~ 150세트를 자체 제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목적과 구성을 살펴봅시다



# 5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1.

많은 일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들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학교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팀원들 간의 이야기도,  
일을 하는 동안의 이야기도 좋아요~



# 5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1.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인견 조율의 어려움 예상 장소 시간 절차 플랜B  
학업과 완급조절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원하는 만큼 일을 **완성**하기엔 **현생이 너무 바쁘다**

# 5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1.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왔나요?  
COMMA만의 해결방법이 있다면?

## 5 완벽하려고 하지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우리, 원하는대로 생각한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자. 마감기한은 두되,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가자.



마음을 놓는 방법

협업.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쉬어가기**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

## 6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2.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그러면 활동하면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했어요?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6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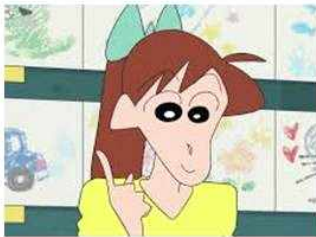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팀플을 위한 업무공간의 지원이 필요!  
카페에 가서 음료 하나로 만나질 보내는  
민폐에, 항상 없는 학생의 주머니 사정

## 6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2.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여기 계신 박성은쌤의 도움!! 원래 하려던  
방법이 절차상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 6 COMMA의 여정 : 인터뷰 PART 2.

활동을 하는 동안의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언제나 팀플을 하며 겪는 일들은 수다떨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OMMA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던 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 이 때 만큼은 잊을 수 없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 7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생각, 물건, 가치관, 목표, 주변인..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길 속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 있었어요!

**나**

요즘 하는 생각 향수 소속기관  
롤모델 커피 음악취향 가족 시험  
캐릭터 신발 친구 치킨 피자 근접한 목표  
아끼는 물건 가치관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 집으로 가는 길 기분

# 8 어떤 걸 바꾸는 걸까?

어떤 문제를 주목해야 해? 누구의 문제?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문제, 한 번 더 생각해봐!

## CHANGE MAKER

WHAT?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하면 내가 행복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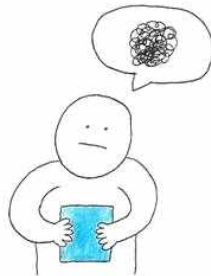
WHO?

동떨어진 사람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바꾸는 일, 곧 나를 바꾸는 일

# 9 나를 바꾸는 일. CHANGE MAKER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생각, 물건, 가치관, 목표, 주변인..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길 속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 있어요!



**문제?** 알고 있는 문제  
모두가 생각하는 문제  
나에게 해당하는 문제

## 9 나를 바꾸는 일. CHANGE MAKER

---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생각, 물건, 가치관, 목표, 주변인..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길 속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 있어요!

---



해결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은  
문제를 찾아!

## 9 나를 바꾸는 일. CHANGE MAKER

---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이루고 있는 생각, 물건, 가치관, 목표, 주변인..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길 속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 있어요!

---



그게 아마 더 **행복한** 너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찾는 일이 될 거야!

## PRO.03.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변경 이전 기획 당시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기획안  
(기획 참여 팀원 : 이민영, 박연수, 김지은, 한해인, 변지윤)

### ① 참여형 위로의 계단

2016년 연말에 학생들이 위로의 글귀를 쓴 후 계단 벽면에 전시(일회성)

### ② 영구형 위로의 계단

계단 벽면 혹은 계단 단마다 글귀 판넬 삽입

당시 예산 및 시간 부족으로 2016년 안에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에 2017년에 예산과 설치 결재를 받게 되어 디자인업체가 아닌 교내 미술 진로를 희망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학생을 모집하기로 함. 다음은 2016년 당시의 기획안의 요약본임.

# 8-1. 위로의 계단 (참여ver.)

학급 단위, 1-2학년생 단위로 활동을 한 후 학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것을 글귀와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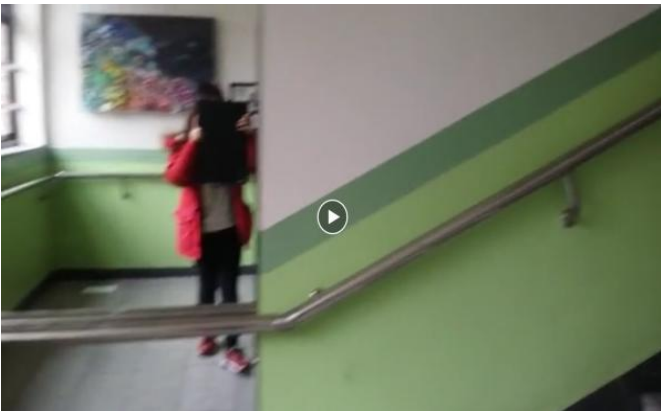
2-3층

위로의 계단의 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말에 학교에 가서 직접 A4 사이즈의 종이를 대 보며 그 수치를 측정하였다.



1-2층

그리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여 밴드에 올려 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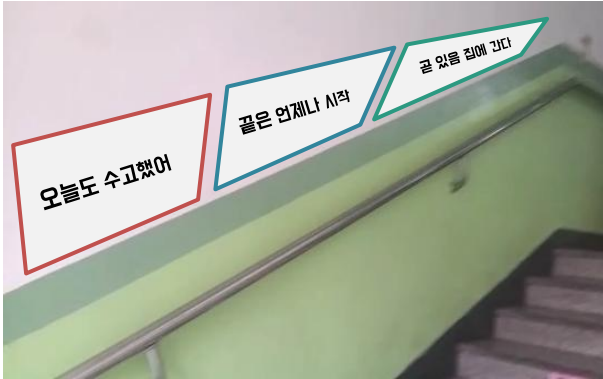
동시에, 위로의 계단의 경우 영구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었기에 한 층당 몇 개의 문구가 필요한지 측정하였고, 각 층마다 몇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8-1. 위로의 계단 (참여ver.)

학급 단위, 1-2학년생 단위로 활동을 한 후 학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글귀와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위로의 계단 참여ver. 공간 구상>



## <위로의 계단 참여ver. 실현 방법>

1. 테마를 잡고 위로와 공감이 가능한 글귀를 정한다.
2. A3 종이에 여백을 두고 프린트한다.
3. 벽면에 설치형 펜을 배치해 글귀의 여백에 자신의 마음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4. 계단 주변에 위로의 계단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크게 인쇄하여 붙인다.
5. 학급 당 A4인쇄물, 페이스북 수대말, 컴마 페이지, 직접 돌아다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로의 계단에 대해 홍보한다.
6. 학교 구성원들이 남긴 말들을 찍어 페이스북 등에 올려 수지고 위로 공동체를 조성한다.

# 8-1. 위로의 계단 (참여ver.)

학급 단위, 1-2학년생 단위로 활동을 한 후 학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글귀와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참여가 가능한 위로의 계단 \_ 취지와 목적>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사진 속 고립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참여가 가능한 위로의 계단

같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

친구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의 공간

### KEY POINT 1.

고통 혹은 고민 등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 힘이 나는 분위기 조성

#공유 #공감

### KEY POINT 2.

서로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공유의 공간

#위로 #따뜻한 위로공동체

## <참여가 가능한 위로의 계단 \_ 한계>

1. 의견을 나누기에 계단이라는 공간이 적합하지 않다.
2. 영구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3.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4.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5. 실현시키지 못한 스트레스 다이어트존을 변형한 것이라 원래의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 8-1. 위로의 계단 (참여ver.)

학급 단위, 1-2학년생 단위로 활동을 한 후 학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것을 글귀와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위로의 계단 참여ver 홍보지>

**위로의 계단**

벌써 2016년이 끝나가고 있어요..ㅎㅎ 자갈자갈 모래모래... 저희 제안디자이너 COMMA 와 함께 수지교에서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을 나눠도 좋아요!!

그 어느 누구도 권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걸음을 뚫을 수 있습니다. -김민서-

잘했고, 잘 하고 있고 잘 할거야

중앙현관 계단 1-3층의 벽면을 보시면 옆의 사진처럼 글귀들이 붙어있을 거예요!  
주욱 올라가면서 글귀들을 읽어보고, 공간이 가는 글귀가 있다면 여백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펜은 가보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ㅎㅎ

올 한 해 다들 알차게 보내셨나요?  
COMMA와 함께 마음을 정리해보아요!!  
자신, 친구, 선생님.. 누구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원, 다짐, 헤어짐 등등  
하고 싶은 말을 글귀 여백에 적어주세요!

제안디자이너 771  
COMMA

# 8-1. 위로의 계단 (참여ver.)

학급 단위, 1-2학년생 단위로 활동을 한 후 학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것을 글귀와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위로의 계단 글귀 제작 예시 >

내가 상상하는 만큼  
두려움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공포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상력의 산물이니까

생각이 길면  
용기는 사라지는 법이야  
-드림하이-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영화 <강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해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라.

흔들리되, 부러지지 말자.  
쓰러지되, 무너지지 말자.

**노력**이라는 단어에  
떳떳할 만큼 노력하기를

## 8-2. 위로의 계단 (영구ver.)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들간의 협의 끝에, 위로의 계단을 영구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사항들입니다.



각 층을 조사해 본 결과 왼쪽의 표처럼 결과가 나타났다. 1층에는 여학생들만으로, 2층은 1학년 남학생들, 여학생들로, 3층은 1학년 남자와 2학년, 4층은 2,3학년들로, 5층은 3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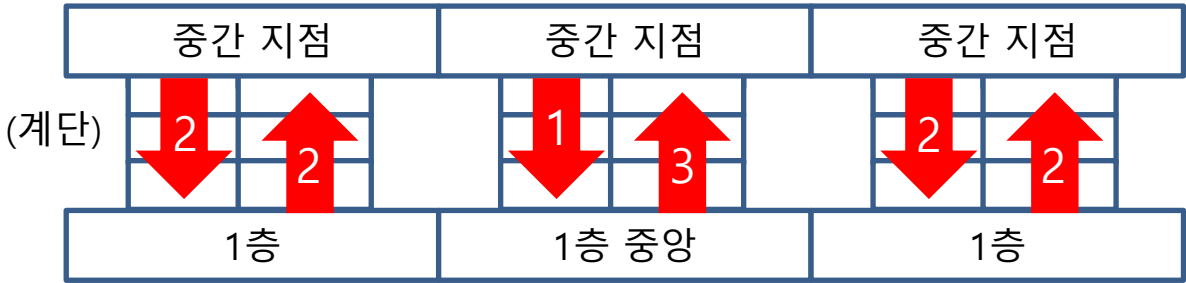


오른쪽의 사진은 위로의 계단 예시 사진이다. 사진의 모습처럼 모든 단에 불일 예정이 아니라, 한 층에 올라가는 데에 4개씩 불일 예정이다.

## 8-2. 위로의 계단 (영구ver.)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들간의 협의 끝에, 위로의 계단을 영구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사항들입니다.

<실제 글귀 개수>



위로의 계단을 시행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러 학교에 갔었을 때, 1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계단이 위의 사진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배치를 활용하고, 각 층별 학년을 고려하여 글귀를 확인하게 될 때 그에 걸 맞는 테마가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사진은 위의 그림의 설명을 돕기 위한 실제 예시 사진이다.



# 8-2. 위로의 계단 (영구ver.)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들간의 협의 끝에, 위로의 계단을 영구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사항들입니다.

## <테마가 있는 위로의 계단 구성>

- (1) 각 층마다의 학년을 고려하여 문구를 선정할 것.
- (2) 위로의 계단은 계단을 올라가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문구를 선정할 것.
- (3) 친근한 어투를 사용할 것.

그리고 다음은 팀원들이 4개의 테마를 정해 각자 조사해 온 글귀들이다. 선생님과의 협의 후 위로의 계단 최종적인 글귀를 정하고 다음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채인지메이커 COMMA 위로의 계단 글귀

작성자 : 한해민

CONCEPT :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의지, 끈기, 노력, 밤새는 능력

1. (1) 이기고 싶다면 그 고민을 충분히 견  
 2. (2)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  
 3. (1) 그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사  
 4. (2)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결말을

선택과 집중, 책임감 갖고 행동하기, 목표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 실행능력

1. 노력이라는 단어를 몇몇할 만큼 노력하  
 2.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  
 3. (1) 원가를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  
 4. (2)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  
 5. (3)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  
 6. (1) 위험한 것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만  
 7. (2) 뛰어들고 싶은 용기를 외면하고  
 8. (3) 독특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1.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음  
 2. 각각의 사건을 내 생각과 똑같이 맞추기  
 3.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4. 시비는 사실, 남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적당한 종류, 즐기는 삶

1.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빌  
 2.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  
 3. 아!!!!!!  
 4. ^^~ 아예 계속 다닐 거 웃으면서 가세.

채인지메이커 COMMA 위로의 계단 글귀

작성자 : 서지은

CONCEPT :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의지, 끈기, 노력, 밤새는 능력

이렇게라도 안하면 도저히 할 수가  
 기한은 내일 만나기 전까지로 하  
 1-2층, 2-3층, 3-4층, 4-5층으로  
 아래 주제 1-4번 모두 각각 짧은  
 추가하고 싶은 진세 있으면 그것도

CONCEPT :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의지, 끈기, 노력, 밤새는 능력

1. 탁월한 한의 사건이 아니라  
 2.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3. 바람처럼 강물처럼 유연하게 영  
 4.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것다

선택과 집중, 책임감 갖고 행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 실행

1.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2. 독특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  
 3.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  
 4. 열정이 없는 사람은, 폼짝하지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1.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2.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3. 현실은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  
 4. 세상이라는 피움의 한 조각이

적당한 종류, 즐기는 삶

1.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냥, 행복  
 2. 열심히, 조금은 여유있게  
 3.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능

채인지메이커 COMMA 위로의 계단 글귀

작성자 : 이민영

CONCEPT :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의지, 끈기, 노력, 밤새는 능력

1.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2. 거룩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살라. 믿음과 열심에는 피곤과 짜증이 없다. -**어니스트 헨츠**  
 3.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않게 하라. -**에머슨**  
 4.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바라지 마라. -**도그**  
 5.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K. 오브라이언**  
 6. 이 꼭 깨닫고, 보란 듯이 제대로 한 번 미쳐보자

선택과 집중, 책임감 갖고 행동하기, 목표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 실행능력

1.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헤밍웨이**  
 2.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3.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벗어나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에 불과하다.  
 4. 자기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라. -**먼터니 로빈스**  
 5.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고집은 유익할 때가 있다. -**헨리 워드 비처**  
 6.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것이다.  
 7. 실현에는 10%의 마음과 90%의 의지가 필요하다.  
 8.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미래의 나를 꿈꾸며, 오늘의 나를 살아라.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1.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지 마라.  
 2.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 노력할 여지가 많다.  
 3.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마라.  
 4. 그렇더라도 부지런히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라.  
 5. 날 힘들게 밀어내고 있는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면 뒤를 돌아라.  
 6. 그 바람은 내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손뿔이 될 것이다.  
 7. 세상과 상대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은 지치고, 지겹고, 무모하다. -**잭 웰치**

적당한 종류, 즐기는 삶

1. 방향과 변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바그너**  
 2. 속제가 아닌 축제하듯 사는 삶을 살아라.  
 3. 일은 삶의 일부이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4.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에게 배경이 된다.

## PRO.03-A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초성 벽화 (2월-5월)

(참여 팀원 : 이민영, 박연수, 김지은, 한해인, 변지윤)

부제. 계단 벽면 꾸미기 - 보는 이가 답을 만드는 초성

가. 공간기획의도

- 우리 의도를 알아채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도를 만들어가는 공간.
- 스쳐지나가는 BY-PASS 공간인 계단에는 스쳐지나갈 정도만의 정보가 필요함.  
멈춰 서야할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음.
-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

나. 기획 구성

- 한 층에 두 개, 1-2층, 2-3층, 3-4층, 4-5층 총 8개의 초성
- 한 두 개 정도는 답변이 한정적이더라도 우리 프로젝트에 중요한 말이라면 포함가능 (함께하자 행복하자)

다. 구성 내용

1. ~하자

ㅎ ㄱ ㅎ ㅈ

함께하자

ㅎ ㄴ ㅎ ㅈ

행복하자 후불하자 해박하자 항복하자 형벌하자 해변하자 혼밥하자 합병하자 해병하  
자 해빙하자 해방하자 한방하자

ㅇ ㅈ ㅎ ㅈ

인정하자 애정하자 애증하자 아재하자 아주하자 안정하자 우정하자 아장하자 일주하  
자 일정하자 아쟁하자 유지하자 이제하자 어제했지 운전하자

2. ~싶어

ㅇ ㄱ ㅈ ㅇ

울고싶어 웃고싶어 옆고싶어 엇고싶어 익고싶어 있고싶어 잇고싶어 앓고싶어 안고싶



어 앓고싶어 열고싶어 옳고싶어 잃고싶어 없고싶어 얻고싶어 잇고싶어 열고싶어 약고  
싶어 엮고싶어 오고싶어 애고싶어 이거사요 이기세요

ㅂ ㄱ ㅅ ㅇ

보고싶어 밝고싶어 벗고싶어 뺏고싶어 받고싶어 뵈고싶어 불고싶어 붙고싶어 베고싶  
어 붓고싶어 붉고싶어

ㄱ ㄱ ㅅ ㅇ

가고싶어 갈고싶어 갖고싶어 견고싶어 곧고싶어 길고싶어 굵고싶어 굵고싶어 감고싶  
어 개고싶어 곱고싶어 감고싶어 갓고싶어 같고싶어

3. ~였지?

ㅎ ㄷ ㅇ ㅈ

힘들었지 힘도없지 힘도있지 힘도와줘

ㅇ ㄹ ㅇ ㅈ

어려웠지 이리와줘 올라와줘 여렸었지 어렸었지 아렸었지 아령이지 아량이지

4. ~어

ㅈ ㅎ ㅇ

잘했어 조화요 지혜요

ㄱ ㅈ ㅇ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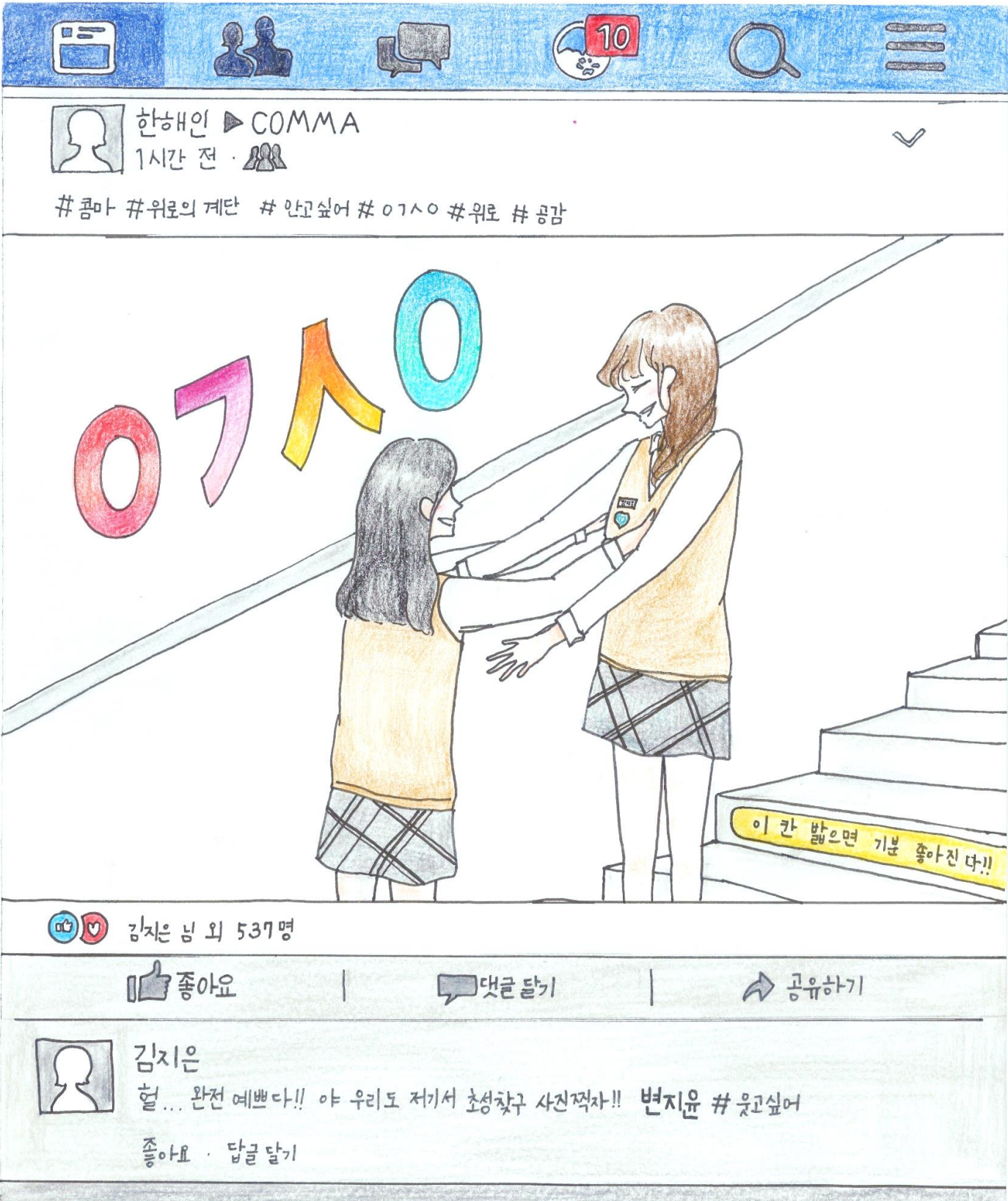
라. 제작 방안

미술팀과 협의를 통해 각 층별 테마를 잡아 초성이 들어갈 수 있는 벽화를 그리고자  
했으나 글귀판 제작 이후 예산과 시간 문제로 진행되지 못함.

마. 활동 진행 과정

2월, 기존팀원과 글귀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에 미술팀을 모집하고, 5월까지 콘티  
기획을 했음.(콘티 제작 참여 인원 : 이민영, 박연수, 김지은, 한해인, 박주연, 심민서,  
홍정우, 김현수)

# 위로의 계단 판넬 그림



## PRO.03-B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글귀 및 일러스트 (2월-7월)

### ① 공간 디자인 초안 및 배치 예시

- 디자인 초안 제작 이민영

### ② 프로젝트 설명 판넬

- 판넬 그림 김지은
- 판넬 편집 이민영, 박연수, 한해인

### ③ 글귀 및 일러스트 완성본

- 글귀 조사 및 선정  
이민영, 박연수, 한해인, 김지은, 변지윤
- 층별 일러스트 제작 담당자  
1-2F 이민영, 박주연  
2-3F 김지은, 홍정우  
3-4F 박연수, 심민서  
4-5F 한해인, 김현수(진로 동아리원 X, 미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활동기록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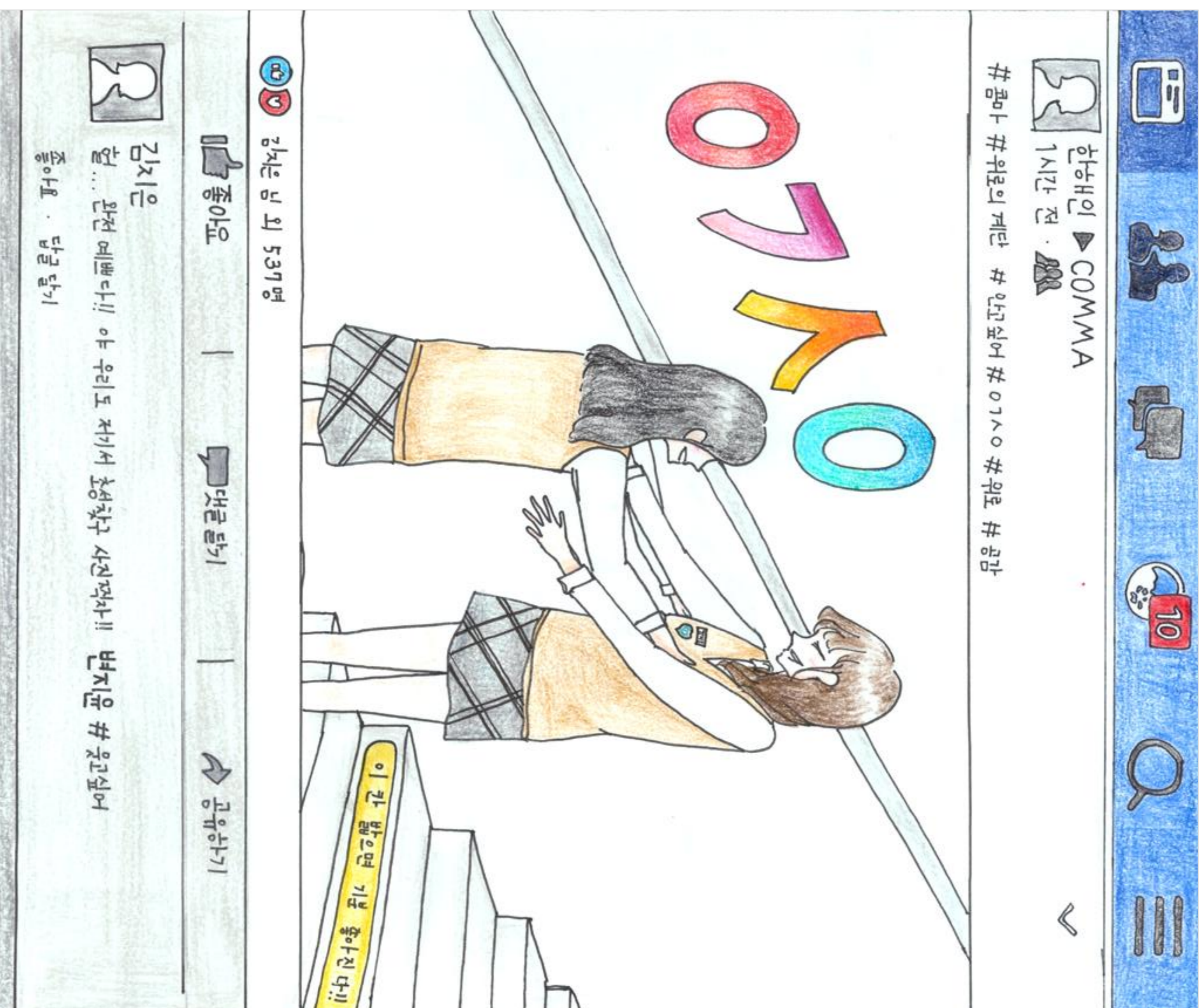
### ④ 한겨레 신문 취재 기사

- (취재 참여 팀원 : 이민영, 박연수, 김지은, 한해인, 변지윤, 박주연, 심민서, 홍정우)
- 한겨레 신문 사회교육분야의 최화진 기자님이 6월에 있었던 변화력충전타임 시즌2 체인지메이커교육자들의 경험보고서설명회 당시의 우리 팀의 발표영상을 보시고, 활동내용에 관한 취재를 요청하셨다. 7월 초 학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자 한겨레 신문에 발행되었다.

# 위로의 계단

## #수지고 위로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 수지고 체인지메이커 1기 COMMA



위로의 계단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다리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곳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사진도 찍으면서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을 보고, 수지고 내에도 그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학교생활에 힘을 얻고, 초성글귀들을 통해서 개인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로의 계단을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생각해봤어요~

#### STEP 1 자신만의 초성 만들기 #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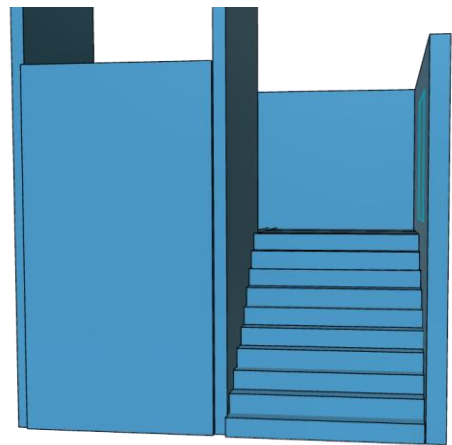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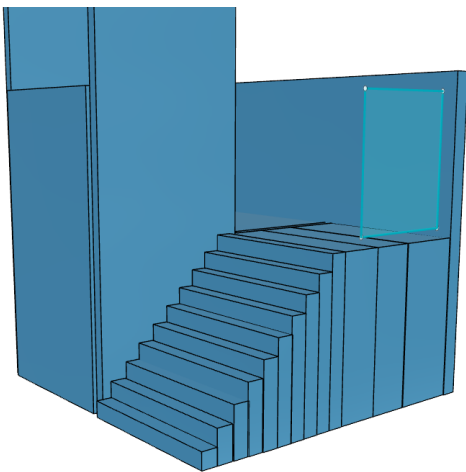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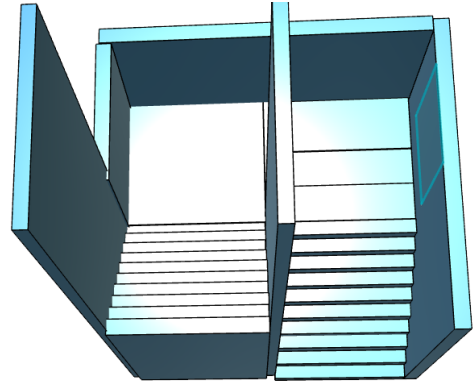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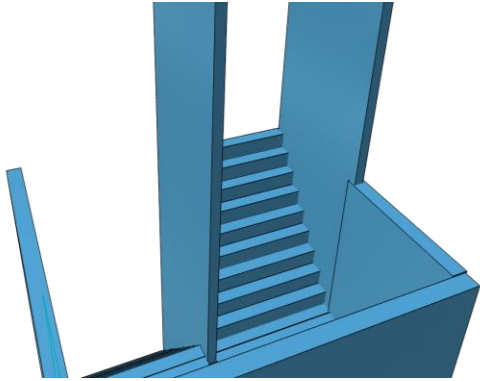
계단 벽에 있는 초성들에 정답은 없어요!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보세요! 연상되는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해쉬태그 위로의 계단을 남기는 것도 재미있겠죠?

ex. ㅇ ㄱ ㅇ ㅇ - 안고싶어 오고싶어 열고싶어 잇고싶어 앓고싶어 엮고싶어 읽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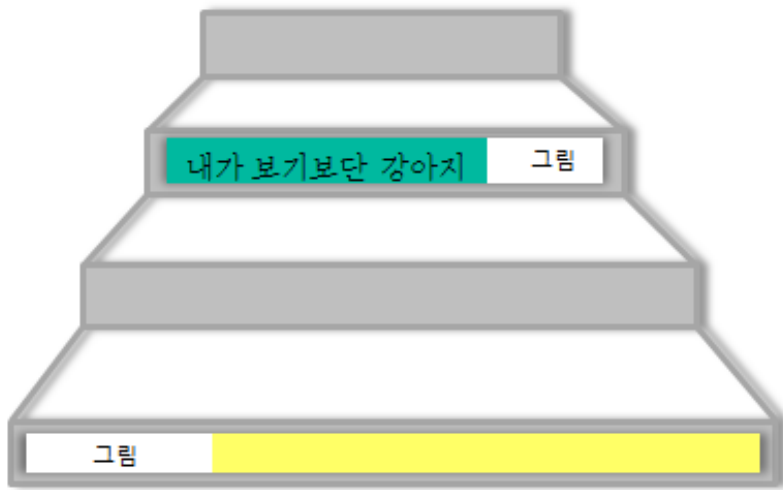
#### STEP 2 여기 밝으면 00함!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한 층 올라갈 때 마다 '여기 밝으면 00함!' 계단이 있어요! 매일 밝으며 소원을 빌어보아요! 매일 오니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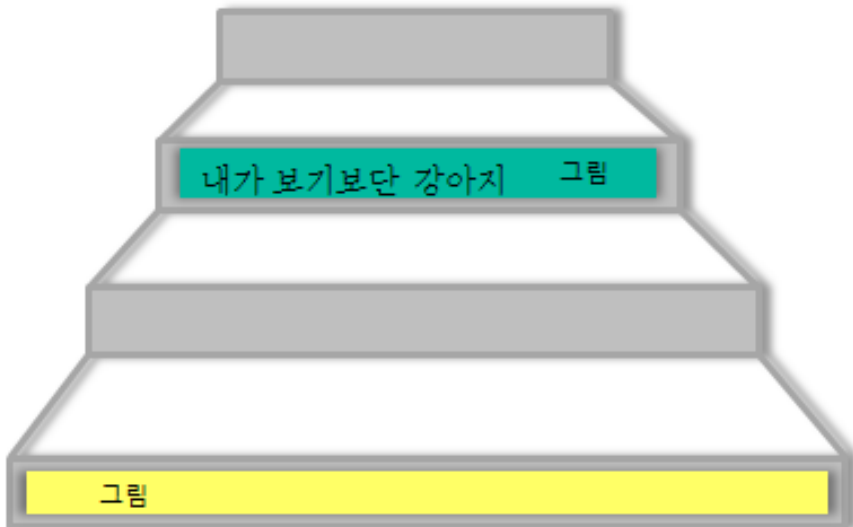
# 학교 계단 123D DESIGN 프로그램 이용 (견적용)



## 글씨판 디자인 예시 1



## 글씨판 디자인 예시 2



1-2F (1)



1-2F (2)



2-3F (1)



2-3F (2)



3-4F (1)



3-4F (2)



4-5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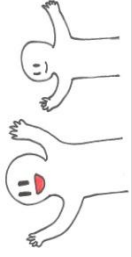


4-5F (2)





친구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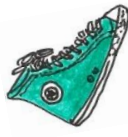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너 말이야!



오늘 정말 멋지다!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런데 신은 견딜 수 있을  고난만 준대



넌 참 큰 사람인가보다



여기 밝으면 오늘 일 다 잡됨!



문어지시마



내가 보기보단 강아지



인생은 다 그런 고래



이 또한 지나가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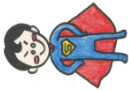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지만 괜찮아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여기 밥으면 먹고 싶은 거 먹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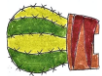
잘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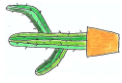
아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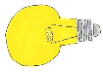


또 하루를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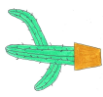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걸



계속 생각해서 큰일이지



여기 뵈으면 걱정 없어짐!



내일의 너가 지금의 너를



미워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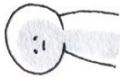


내일의 너가 지금의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힘들수록 웃음이 사라진대



그러니까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웃을수록 <sup>◆</sup>힘든 게 사라질 테니까! 

여기 밝으면 기분 좋아짐!

# ‘팀플’로 웬수같던 친구, ‘힐링키트’로 마음 나누다

등록 :2017-07-04 09:48    수정 :2017-07-04 09:52

## 수지고 ‘힐링 나눔 프로젝트’

모듬활동 중요해진 고교 생활  
 ‘무임승차’ 때문에 화나는 상황 많아  
 ‘고생하는 친구들 다독여보자’ 뜻으로  
 ‘함께+여유’라는 뜻의 ‘콤마’ 결성  
 손편지·비타민·컬러링북 도안 등  
 힐링키트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학교 계단에 위로와 공감 메시지도



경기 용인 수지고 체인지메이커 동아리 ‘콤마’ 학생들은 힐링키트를 만들어 위조성적 표, 컬러링북 도안, 팔찌, 비타민, 간식 등을 담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고등학교 입학 후, 과학시간에 자율탐구 프로젝트를 모듬별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학 ‘팀플 스트레스’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다. 팀원 간 의견 조율도 힘들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무임승차했다. 간혹 자신이 맡은 일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친구 탓에 결과물을 완성 못하고 점수가 깎이기도 했다. 조별 수행평가도 스트레스를 받긴 마찬가지였다.



팀 프로젝트를 해본 학생이라면 한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다. 이민영(2학년)양과 한해인(2학년)양은 밤새 과제를 하다 아픈 어깨를 서로 주물러주고 힘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순간 위안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교내에서 모두를 위한 ‘위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 수지고의 ‘힐링 나눔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두 학생의 생각에 공감한 세 친구가 합류해 ‘콤마’라는 동아리가 생겼다. 콤마는 ‘함께’란 뜻의 ‘콤’(com)과 ‘나의 여유’란 뜻의 ‘마이 어포드’(my afford)의 앞 글자를 딴 말. ‘경쟁에 지친 우리, 함께 보듬어주자’는 슬로건도 만들었다.

학생들은 ‘힐링’이나 위로·공유·공감을 주제로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청의 ‘마음약방 자판기’나 지하철역 감정상자 ‘달콤창고’ 프로젝트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학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성적표와 착한 인성 등을 평가한 ‘위조 성적표’와 “먹고 힘내”라는 의미의 비타민·젤리 등 간식거리, 상처받았을 때 붙이라는 뜻으로 반창고 등을 힐링키트에 넣기로 했다.

‘아임 유어 콤마, 유어 마이 콤마’(I’m your COMMA, You’re my COMMA)라는 문구를 넣은 팔찌도 제작했다. ‘나는 너의 심표이고 너도 나의 심표’라는 의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리는 것이다. 직접 디자인해 그린 컬러링북 도안과 편지지도 담았다.

키트는 학생들이 받는 이를 정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쓴 뒤 콤마에 건네면 힐링키트에 편지를 넣어 배달해주는 식으로 나눠줬다. 김지은양은 “지난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란 책을 읽고 반에서 익명의 손편지 활동을 벌였다. 사람들이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고민을 말하면 답장해주는 내용인데, 의미 없는 답변인데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받는 걸 보고 직접 해본 것”이라고 했다.

김현수양은 “키트를 나눈 뒤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평소 못 했던 말, 미안한 말을 건네고 ‘다들 힘든데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교실 분위기 자체가 좋아졌다”고 했다. 실제 편지를 건네받고 감동해서 운 학생도 있었다.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수지고 위로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수지고 1층 계단 벽면에 붙은 ‘위로의 계단’ 설명이다. 안내문에는 자살 예방을 위해 만든 한강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 문구가 적힌 계단을 오르며 학교생활에 힘을 얻고 초성 글귀를 통해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콤마가 등교 때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교내 계단 1층부터 5층까지 문구를 적은 패넌을 붙인 것. 학생들은 드라마 명대사나 책, 인터넷을 뒤져 의미 있는 말을 찾았

다. 공감, 우정, 격려 등 주제별로 1인당 다섯개씩 문구를 정해 온 뒤 투표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붙인 문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대, 하지만 괜찮아,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런데 신은 견딜 수 있을 고난만 준대, 넌 참 큰사람 인가보다’, ‘문어지지만, 내가 보기보단 강아지, 인생은 다 그런 고래, 이 또한 지나가 오리’ 등이다. 내용에 맞는 문어, 강아지, 고래, 가오리 그림도 아기자기하게 그려넣었다.

계단 틈틈이 ‘여기 밟으면 오늘 일 다 잘됨!’, ‘여기 밟으면 먹고 싶은 거 먹게 됨!’이란 깨알 문구도 넣었다. 한양은 “마포대교 사례를 보면서 자살하려고 갔다가 문구를 보고 삶의 힘을 얻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사진 찍으며 공간의 의미 자체를 바꿨다고 생각했다. 공부하러 가며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생각을 환기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변지운양은 “격언처럼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힐링보다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공감도 안 된다. 가령, 초성 ‘ㅇㅏㅓㅇ’를 적어두면 ‘울고 싶어’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웃고 싶어’나 ‘안고 싶어’로 바꿔볼 수도 있다. 같은 공간이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갈 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위로의 계단은 콤마와 함께 미술에 재능 있고 취지에 공감한 친구들이 협업해 만들었다. 미술 전공을 준비하는 김현수양은 “원래 계단에 영어 속담이나 유명 격언이 붙어 있었다. ‘노 페인, 노 게인스’(no pain, no gains) 같은 문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터라 애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식의 이야기로 문구를 바꾸자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

처음부터 프로젝트가 술술 풀린 건 아니었다. 힐링키트 상자 디자인부터 안에 담을 내용물 등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위로의 계단도 각자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각자 원해서 하는 일인 만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맞춰갔다.

김지은양은 “평소 소심해서 싫은 소리 못 하고 상대방 기분 상할까봐 화도 제대로 못 냈는데 프로젝트를 하며 맘에 안 드는 걸 표출하는 것이 관계를 한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안에 무조건 담아두기보다 같이 부딪히고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며 결론으로 나아갔다”며 “이 활동을 하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 같다”고 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활동하는 과정 자체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입시 경쟁에 찌든 우리가 친구한테 따뜻한 감정을 먼저 건네고 함께 사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 의미 있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 키트를 만들어 나눴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아 지도교사는 “이 지역이 평준화된 지 3년 됐지만 아이들이 욕심이 많아 전 과목을 놓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다”고 했다. “콤마는 힘들 때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친구들을 위해 짬짬이 활동을 벌였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으로 모여 ‘쉽표가 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려고 애썼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변화를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였다.”

콤마의 프로젝트는 ‘체인지메이커’ 활동으로 이뤄졌다. 체인지메이커는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의 유스벤처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발견한 문제, 변화시키고픈 일을 찾아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 200여개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나 자유학기제, 진로 수업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글·사진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 [lotus57@hanedui.com](mailto:lotus57@hanedui.com)



‘콤마’와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내 계단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패넬을 붙여 ‘위로의 계단’을 만들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1343.html#csidxaccb50765b214c0b5010593d12a22a9>



## 4. 활동 소감

### 20608 이민영

성수동 사회혁신가 투어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닌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는 많은 소셜벤처들을 보고,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 그 날 체인지메이커 활동 공유회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고난을 겪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이겨내왔구나' 하는 자긍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기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의견 대립도 겪었지만, 이미 그러한 일을 많이 겪어온 우리였기에 빠르게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계단을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BY-PASS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초성벽화를 완성하고 싶었었는데, 예산과 시간 상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래도, 혼자만의 아이디어 기획이 아닌 거의 제작 직전까지의 콘티까지 새로 합류한 미술팀 친구들과 생각해볼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가장 크게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 즉,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신감이 없다면, 아이디어 기획을 통해 실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실행해내는 추진력은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새로 합류한 미술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합류 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 같다.

내가 맡은 1-2층의 일러스트에 관해 말해보자면, 1-2층은 학교에 오게 되면, 처음으로 지나게 되는 위치의 계단이기에 일러스트에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나타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층의 컨셉을 '출발, 여행, 시작'으로 잡고, 누군가와 새롭게 만날 때, 또 어딘가를 떠날 때를 생각해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또 나는 한 층을 다 올랐을 때 '여기 밟으면 ~하게 됨'이라고 적혀있는 색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했는데, 기획 당시 내겐 그 층이 목적지였던 사람이 그곳을

1초 스치는 것을 통해 기분이 전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시공 후 어떤 친구에게 그 색판에 대해 괜히 오늘 일이 잘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기획의도가 달성된 것 같아 뿌듯했다.

위로의 계단 프로젝트 제작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 나와 연수는 6월, 청소년 대표로 100여명의 체인지메이커 지도교사분들과 몇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겪어온 변화를 보여주는 발표를 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발표를 준비하고 직접 하는 동안 나는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감동을 줄지, 그 코드를 설정하는 발표 전략에 대해 깨달은 것 같다.

아이디어 기획,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것에 흥미가 많은 내게(진로희망 소셜벤처(컨텐츠개발자)), 올해의 체인지메이커 활동은 타인에게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달능력과 공감도를 높이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 20211 박연수

무려 2년이란 기간 동안 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다. 수지고에서 느낀 서로간의 경쟁심을 완화시키고 서로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COMMA이다. '힐링키트'에 이은 우리의 두번째 프로젝트 '위로의 계단'을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꺼내 하나하나 실현시키는 경험을 하였다.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처음 기획부터 과정 중간 중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공수하고 직접 마련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다른 팀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되는 체인지메이커 COMMA에서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인 것 같다.

특히, 위로의 계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후 우리의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계단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머릿속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성취한 이 프로젝트의 최종목표가 학교친구들의 '힐링' 이라는 점이, 결과적으로 나와 우리 팀원 학교친구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 20406 박주연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는 나에게 하나의 좋은 추억이자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우선 학생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가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체인지메이커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는 것 같다.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들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등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지며 깊은 사고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프로젝트로 배운 또 다른 점은 바로 이름 그대로에 있다. 체인지메이커.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변화를 창출해내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위로의 계단 제작 후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님께서 계단을 통해 하루가 더 행복해졌다는 말을 듣고 더욱 이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협동과 관련해서도 느낀 바가 많았는데, 각각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마치 협동의 결실이 된 것 같았다. 이점에서 이 활동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더 나아가 나는 미술관련 진로 희망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계단 제작과 예정되어 있던 교내 계단 벽화작업은 나의 미적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계단 작업에서는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 시안을 디자인해보는 경험을 해보았고 이 과정에서 글자의 배치, 색의 조합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의 미적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벽화 시안 작업 역시 여러 다양한 시안을 고려하고 스케치 도안을 제작해 볼 수 있었다. 벽화 시안 작업에서는 특히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 싶어 깊은 생각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 같다.

## 20707 변지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견마찰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며 최종본을 만들 수 있었고 완공되고 난 뒤 주변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행한 계단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아가 지친 학생들이 잠깐이라도 보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혹은 위로를 받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타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0521 한해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매달려 본 게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마음을 잡아준 친구들 덕분에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새로 함께하게 된 친구와 기존의 컴마 팀원들 사이에 소통의 부족으로 나로 인해 갈등이 생겼는데, 이후 대화로 풀어나가며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함께 힘겹게 정했던 것이었기에 의미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다.

## 20210 김현수

체인지메이커 '콤마'로서 최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반 벽화 디자인에 의견을 주었고, 이후 한국테마 이미지를 구상해 정리했다. 4-5층에 들어가는 글귀 정리와 들어갈 삽화를 작업했다.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에 대해 더 알게 되었으며,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다.

## 20808 김지은

위로의 계단 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는 목표가 직접적으로 실현돼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취미로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프로젝트와 그림을 연관시켜 활동해서 즐거웠다. 다양한 위로와 공감의 문구를 읽어보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어떤 말로 전해야할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 20427 홍정우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다보니 내가 조금 변하게 된 것을 느꼈다. 일하면서 종종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정말 뿌듯하였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친구가 맡아서 해주고 친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같이해주면서 나도 나름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느꼈다. 다음에도 이런 친구들과 제대로 시간이 많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또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 20214 심민서

원래 학교 계단에 영어 속담이나 유명 격언이 붙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부터 많이 알고 있던 속담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 였다. 교내 계단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아서 친구들이 이 계단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쾌하게 등교하며 삶의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식의 이야기로 문구를 바꾸어 칭찬도 해주고 새로운 느낌이라며 한마디씩 해줄 수 있어 친구들과 고민한 결과에 대해 뿌듯해 했다.

각자의 그림체와 함께 문구가 들어가서 컨셉을 고민하고 디자인했기에 그 그림 하나 하나 다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위로의 계단도 각자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처 리하지 못해 일정이 밀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각자 원해서 하는 일인 만큼 직접 조사 하고 고민하며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게 되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